

中企, 해외 바이어와 랜선 수출상담...153개사와 소통 활발

한국전력 '빅스포 2020' 온라인 관람해보니

수출 희망 지역 고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바이어 초청 디지털변환 등 신기술 공개...에너지밸리 48개사 지역인재 전용관도 지역 특산품 최대 50% 할인 장터 운영...온라인 전시 트렌드 제시

올해 처음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한국 전력 '빅스포'(BIXPO) 박람회에서는 수만명이 붐비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시공간 따지지 않는 상호 소통이 돋보였다. 한국전력이 주최하는 대표 에너지 박람회 '빅스포 2020'(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가 지난 2일 부터 온라인(bixpo.kr) 개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6회차 만에 처음 온라인으로 열리는 박람회라, 홈페이지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 졌다.

지난해(299개사)보다 70여 개 줄어든 220개사가 참가하지만 GE(제너럴일렉트릭사), 지멘스, 노키아, SK텔레콤, SM, 두산중공업, LS산전, 현대일렉트릭 등은 올해도 명단에 올랐다. 한전은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 바이어와의 랜선 수출상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통역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3일 기준 18개 국가 153개사가 수출상담회에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은 39명의 구매 담당자(바이어)와 116건의 상담을 치른다.

바이어는 아세안 10개국 등 신남방지역과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초청했다.

이날은 시간대 별로 필리핀, 일본, 에콰도르,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덴마크, 모로코 등이 한국 기업과 일대 일 상담을 받았다.

올해 빅스포 주제는 지난해와 같이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화'로, 신기술전시회, 국제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열어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공개한다.

올해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변환 및 에너지전환 사례를 보여준다.

초전도 송전기술, 에너지 저장장치(ESS), 원격 검침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전력설비 관리 등 전력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변환 신기술을 선보

일 방침이다.

또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 태양전지 기술, 바닷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풍력을 비롯해 최근 세계 최초로 시행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수중 태양광 기술'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R&D 연구성과를 글로벌기업 30개사와 중소기업 200개사가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참관객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발표자의 기술사례를 영상으로 관람하며 관람평이나 의견을 댓글로 전할 수 있다.

나주 에너지밸리 취업을 꿈꾸는 지역 인재는 잡코리아와 연계해 진행되는 일자리 전용관(myjob.jobkorea.co.kr)으로 가면 된다.

올해는 광주 18개사·나주 에너지밸리 30개사 등 지난해보다 3곳 많은 48개사가 지역 인재를 찾는다. 가보㈜, 유진테크노, 유성하이텍, 디투엔지니어링 등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 특산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산물 장터도 온라인상으로 열린다. 이들 물품은 최대 반값 할인을 내걸었으며, 빅스포 참가자들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와 광주 공동 브랜드 사이트에서 내놓은 지역 특산품을 5%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지역 농수산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한전이 지정한 전남 9개·광주 18개 품목은 기존 할인가보다 2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수만명이 참가하던 빅스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에는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지만, 온라인 빅스포는 새로운 전시 트렌드로 자리잡는 '비대면 문화'의 모범적 적용사례를 보여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 전력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빅스포 참가 10가지 신기술 선보인다

차세대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등

한전KDN은 '빅스포 2020' 온라인 전시회에 10가지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한전KDN은 ▲차세대 배전자동화 단말장치(FRTU) ▲전력통신기반 실버헬스케어 시스템 ▲PCIe(PCI-express) 카드 형태의 보안장치 ▲인공지능(AI)기반 보안관제 시스템 등 10종의 솔루션을 선보인다. 차세대 배전자동화 단말장치는 기존 장치에 비해 속도가 2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전력품질감시(PQM)와 고장검출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마련된 전력통신기반 실버헬스케어 시스템은 헬스케어밴드를 통해 들어온 건강정보를 원격지 보호자에 통보한다. 영상분석 기반 발전설비 감시진단 시스템은 발전소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발전설비의 이상 동작, 화재 등 사고, 작업자 위험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또 발전설비 감시진단 기술 등 안전 분야 및 발전 공정 관리 시스템도 함께 선보인다. 한전KDN은 지난해 박람회 참관객과 올해 온라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화재대피는 이렇게 소화기 사용 훈련을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7~28일 나주 본사 등에서 '2020 재난대응훈련'을 열고 전 임직원이 화재대피·소화기 사용 훈련을 했다. (사학연금 제공)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수상작 코리아페스타 연계 20% 할인

aT, 11월 한 달 동안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월을 '김치의 달'로 정하고 한 달 동안 할인전을 진행한다. aT는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수상작을 육선 김치기획전과 aT 포스몰(pos-mall.co.kr) 김치관에서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품평회 수상 배추김치는 20%, 수상업체의 기타 김치제품은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는 우수 국산 강소김치를 가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블라인드 시식,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현장평가, 국산원료 사용비율, 소비자 접근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뒀다.

올해 품평회에서는 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예소담 특포김치'와 함께 총 7개 업체의 배추김치가 선발됐다. 할인전에는 6개 업체의 제품이 오른다.

이번 기획전은 코리아세일페스타(1일-15일)와 연계해 진행된다.

aT 오형환 식품진흥처장은 "이번 기획전은 내수소비를 살리기 위한 사회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식납품 중단과 배춧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김치업체와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시큐리티 스타트업 페스티벌 온라인 진행

투자설명회·M&A 교육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6일 정보보호 스타트업(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큐리티 스타트업 IR 페스티벌'을 온라인 방식으로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투자 설명회(IR)와 상담, M&A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로나19로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9월부터 '한국거래소 스타트업마켓'(KSM) 등록 희망 기업을 모집해 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스파이스웨어, 시큐에버, 쏘마, 씨커스, 아스트로시큐리티, 알파비트, 에프원시큐리티, 엠시큐어, 피에스디엘이 이

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창의성, 시장성, 기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은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와 스타트업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개설됐다.

선정업체는 ▲크라우드 펀딩 진행 및 성공 때 자금 조달 지원 ▲한국거래소 투자자문위원회 투자유치 지원 ▲크라우드 펀딩, M&A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로 스타트업의 시장진출과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흥원은 앞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